

취업 필수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인기

컴퓨터학원 수강생 설문 자격증 선호도 1위

광주상의 "국가자격증 인정 기업 확대 노력"

광주상공회의소(이하 광주상의)는 지난달 광주권 컴퓨터학원 25곳의 OA 자격증 수강생(235명)을 대상으로 상공회의소 시행 국가기술자격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이 취업 필수 자격증으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235명) 중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중

목에 대해 알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74%가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중 58%가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시 종목 순위로는 '컴퓨터활용능력(2급)'이 53.5%, '컴퓨터활용능력(1급)'이 23.8%를 차지했고,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는 전체 응답자(235명) 중 61%가 '취업'을 선택했다.

이러한 자격증 취득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라는 질문에 52%가 '50-80%미만'으로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그 이유는 '취업 등 일자리 확보 가능성 개선(자격증 가점 혜택)' 43%, '해당분야 전문성 입증' 20%를 차지했다.

컴퓨터활용능력시험은 1급과 2급이 있으며, 1급은 엑셀(스프레드시트)과 엑세스(데이터베이스), 2급은 엑셀(스프레드시트)만으로 구성돼 있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시험과목과 난이도에서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도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공무원 채용(특정분야) 시 가산점, 300여개의 공공기관·공기업 채용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및 인사·승진에도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간한 2022년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시행하는 10개 기관(546종목) 중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이 전체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시 및 각 구청에서는 시험에 응시한 청년(만19-39세)에게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설문조사에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80%가 '모른다'라고 응답함에 따라,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으로 보여진다.

광주상의 검정사업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이 취업 필수 자격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 대학 일자리센터와 협력해 취업과 연계한 자격시험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기업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격시험 일정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또는 코참패스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검정사업팀(062-350-5851~2)로 문의하면 된다. /임재만 기자

투데이경제



해양에너지, 제8차 ESG위원회 개최

㈜해양에너지는 최근 광산구 하남동 본사에서 향후 회사 발전 정책 제안 및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회공헌활동의 심의·의결에 도움을 얻기 위해 '제8차 ESG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2021년 출범을 시작으로 ESG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8차 위원회에서는 당면위원회 회사 경영진과 위촉위원인 기관·학계·시민단체·재계·법조계·언론 등 외부 전문가 10여명이 참석, 도시가스 공급 추진 현황, 용전마을 도시가스 공급중단 이슈,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추진계획(안) 그리고 장기 성장 계획 수립(안)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성장을 위해 5개년 장기 성장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광주시와 전남 8개 시·군에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내 그린뉴딜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자영업자 5년간 180만명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매년 줄었다

2021년 2천만원 아래로...영세업자 감소 두드러져

최근 5년간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180만명 넘게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66만8천명이었다.

2017년 472만6천명부터 2018년 502만2천명,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 만에 184만2천명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1년 내내 계속됐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1천명이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자영업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났지만, 정작 이들의 '주머니 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됐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연간)은 2017년 2천17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2천136만원, 2019년 2천115만원, 2020년 2천49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 증가 폭이 가장 컸던 2021년에는 평균 소득이 1천952만원을 기록해 2천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중위 소득 역시 2017년 830만원에서 2018년 817만원, 2019년 798만원, 2020년 755만원, 2021년 659만원으로 거듭 감소했다.

소득 감소 흐름은 발이 작은 영세 자영업자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17년 7천744만9천원에서 2021년 7천308만8천원으로 5.6%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186만9천원에서 84만1천원으로 55.0% 대폭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0.1%인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17년 16억2천289만5천원에서 2021년 17억6천532만1천원으로 8.8% 늘었다.

상위 1%의 평균 소득도 2017년 4억8천546만6천원에서 2021년 5억977만5천원으로 5.0%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중위 소득, 평균 소득 감소 추세로 확인됐다"며 "금융 지원 조치 연장과 채무 조정, 전기요금 감면 등 다방면의 안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외환보유액 석 달 만에 줄어

최근 미국 달러 강세와 외환 당국의 환율 안정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60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한은이 지난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209억8천만달러(약 551조원)로, 4월 말(4천266억8천만달러)보다 57억달러 감소했다. 사진은 서울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 6% 금리 나오나

내일 1차 공시 통해 은행 간 조정

이달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은행권에서 '6% 금리'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5년간 월 70만원씩 저금을 부어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한다"는 애초 정책 취지에 부합하려면 은행들이 연 6% 전후의 금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1차 게시할 예정이다.

어떤 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할 것인지, 6%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들이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

며 "6% 수준의 금리가 책정될 경우 애초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무리 없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저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천원) 등을 더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 19-34세 청년이다.

은행들은 1차 사전 공시를 통해 금리 비교·조정 과정 등을 거쳐 12일 최종 금리를 발표하게 된다. /연합뉴스

중기중앙회 '감사원 자체감사심사' 종합 1위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감사원이 실시한 2023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기타공공기관 8개 중 '종합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사원이 기초자치단체, 준정부기관, 공공기업 기타공공기관에서 직전년도에 실시한 자체감사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심사 기준은 감사활동, 감사성과 등 6개 분야 18개 지표이다. 결과에 따라 A, B, C, D 4개 등급과 순위로 구분해 평가한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순위 평가에서도 평가 대상기관 중 종합 1위에 선정된 데 이어 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

이현호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는 "모든 임직원이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수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A등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내부통제체계를 더 강화해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역할과 위상에 맞도록 중앙회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상무지구 상가 (매매)

▶ 중심 상업지구

(6층, 7층) = 140평

시세 → 14억
급매 6억8천

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

장성토지 매매

▶ 장성호(댐) - 5분

광주 - 20분

토목공사 완료

6m 도로접

(100평, 150평, 200평 가능)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 광주
- 광산구 연신동 (근린시설) ▶ 감평가 29억 → 최저가 20억
 -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 ▶ 감평가 50억 → 최저가 28억
 -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 동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평가 31억 → 최저가 22억
 -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 10억 → 최저가 7억5천
 - 광산구 수완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 → 최저가 2억2천
 - 북구 운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1억7천 → 최저가 1억2천
 -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19억

010-6670-9800